

새로운 노트

2025.05.15 목 오후 8:18 · 21분 7초

이태수

참석자 1 00:00

정리를 해 보면서 지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나 이거 하고 싶어 오케이 그냥

참석자 2 00:08

형이 형이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요즘 얘기하는 거 형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데

참석자 1 00:15

내가 생각한 비는 선도랑 재혁이가 생각한 비는 도이 나는 아

참석자 3 00:20

그러니까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DB에 돼 있는 거를 API로 연동만 시켜 놓으면 여기에 바로 참고해 가지고 그 문서들을 벡터 DB로 넣어가지고 벡터화시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다 진행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쿼리만 날릴 시작해요.

참석자 2 00:40

마지막으로 DB에 넣는 방식 같은 거는 저희가 정한 다음에 저희 서비스에 명시를 해 놓으면

참석자 3 00:47

사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엔터프라이즈는 그런 거 싫어해요.

실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그거는 엄청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
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

참석자 4 00:57

아예 자동화

참석자 3 00:58

간단한 걸로만 가져오지 않아

참석자 2 00:59

맞아 그런 것도 너무 방식 저장 방식 같은

참석자 3 01:03

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

참석자 4 01:05

아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경우 그 문서를 따로 추가할 수 있는 페이지
를 넣어놓거나 이런 식으로

참석자 3 01:11

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DB 같은 걸 분석하는 툴들이 있거든요.

예를 들면 텍스트 SQL 같은 걸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넣자마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컬럼 인디치먼트라는 걸 해요.

그게 어떤 기능이에요? 흐름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달아줘요.

컬럼에 1번 컬럼은 뭐고 2번 컬럼은 뭐고 3번 컬럼은 현재 나와 있는 기능들이
그런 게 많거든요.

그게 달리면 뭐가 좋냐면 텍스트 SQL 하면 그걸 참고해서 SQL

참석자 2 01:47

내일 성민이 형도 빠지고

참석자 3 01:50

대신 그 디스크립션을 달 때 여기에는 플롯 데이터 타입이 플롯인지 뭐 그냥 바
차 형태인지 이런 것들은 적혀 있어야 되겠죠.

그래야 이제 그 RDM스의 쿼리를 날릴 거를 자기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래서
그런 것까지 자동화를 만약에 시켜 놓는다면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.

참석자 2 02:08

그럼 집어넣기만니까 알아서

참석자 3 02:09

예 예를 들면 데이터 브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그런
기능들이 잘 돼 있어요.

그래서 바로 밑에 챗봇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.

참석자 2 02:20

어떻게 잘 조정

참석자 3 02:21

어떻게 잘 저장되는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자마자 그냥 컬럼들에 대
한 디스크로션 다 달려 다 자동으로 달려버리니까

참석자 4 02:29

그거는 뭐냐 그냥 SQL 구문 달려 있는 함수 같은 거 하나 구현해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현장 이거 안 보고 앉아

참석자 3 02:41

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좋네요. 지금 RDMS만 집어넣으면 디스크립션 다 달릴 수 있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

참석자 2 02:53

그럼 저는 일요일에 다 같이

참석자 3 02:57

그러면 텍스트 스킴 관련 논문도 좀 볼 수 있고

참석자 4 03:01

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컬럼마다 코멘트 같은 거를 달아줄 때 코멘트 안에 내용을 LDM이 분석해서 생성을 해 줄 수 있게

참석자 3 03:11

예 그게 이제 컬러 인리치먼트인데 아마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좀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.

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좀 찾아보면 되니까

참석자 2 03:20

결국에는 동적 기능 명세서에

참석자 3 03:23

지금 모델은 거의 챗gpt 쓰실 거죠 그렇죠. 그렇게

참석자 4 03:28

지금 지원받은 게 GPT 300달러까지 300달러

참석자 2 03:32

지금 일단 100달러밖에 결제가 안 됐습니다. 축제가

참석자 3 03:36

그럼 뭐 많이 쓸 수 있겠네

참석자 2 03:38

저희가 지금 지원받은 게 GPT 플러스랑 그리고

참석자 3 03:42

만 만 회 이상 콜링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면 그래 만 회 이상 콜링 할 수 있지 않아요?

참석자 4 03:48

만회라는 게 뭐 기준으로

참석자 3 03:50

그냥 어떤 모델이든 싼 모델 같은 경우는

참석자 4 03:53

리퀘스트 분당 리퀘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분당 리퀘스트가 네 아마 그 정도

될 겁니다.

참석자 3 04:01

제가 저도 옛날에 하니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 요금표 있잖아요.
그래서 그거 참고 키 키어에 따라 달라 맞아 맞아 맞아 하셔도 되고 그 아마 막
상 여러분들끼리 테스트해 본다고 해도 커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날릴 거거든요.
그래서 대략적으로 테스트 데이터 다큐멘테이션 하고 데이터 생성하는 데 그걸
다 쓰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토요일 날에 좀 정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
같아요.

참석자 5 04:33

그래서 내일 세 분 안 나오시잖아요. 토요일 날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야 돼요.

참석자 3 04:40

세명이 어디 가요?

참석자 4 04:43

내일 코엑스에서 AI 컨퍼런스

참석자 3 04:46

그러면 출석 인정해 줘요.

참석자 4 04:48

아니요. 출석 인정 안 해줘 가지고 지금 휴가로 가는데 지금 저희 기수 분들이
절반은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

참석자 3 04:58

여기서 초반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?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이요.

좋다. 나 나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쓰는데 우리 병가 있었던 것 같아요.

참석자 6 05:07

병가도 있어

참석자 7 05:10

변관에 몇 평 있어요? 그거는

참석자 4 05:12

가는 한 달에 두 번

참석자 7 05:13

써요. 다

참석자 4 05:14

다는 안 쓰죠 병원

참석자 3 05:18

와야 돼요. 웃긴 게 제 친구들이 호주에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호주는 너 휴가 며칠이야 하면 병가를 포함해서 해야 돼 왜 병가를 당연히 쓰거든요.

그래서 휴가 다 쓰고 병가를 하루씩 꼭 붙여요. 이게 미틀이냐고 그리고 안 물어본대요.

그리고 여행 다 하고 나면 아프잖아요. 항상 그렇죠 아프

참석자 6 05:42

여기 병가 좀 까다로워서 왜 어때 어떻게 해요?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했어도 만약에 뭐 단순 감기 그런 걸로 하면은 하루 빠지는 게 하루 빠지는 건 안 돼가지고 그럼 얼마나 빠져 그런 걸로 빠지면 그냥 결석이에요.

참석자 3 05:55

단순 관계도 와

참석자 6 05:56

네 그러니까 좀 병원을 좀 오래 있어야 되거나 그런

참석자 3 06:00

그럼 거의 불가능하구나. 진짜 막 발이 부서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

참석자 6 06:03

몸살로 갑자기 파가

참석자 4 06:04

이거 리퀘스트 퍼 미닛이 티어 1은 500회네요.

참석자 3 06:12

무슨 뭘 모델이에요? 이건 GPT 4.1 4.1이요.

4.1을 꼭 안 써도 돼요. 미니 써도 되는데

참석자 7 06:19

54 4 5미니 같은 거 그런 거 쓸 것 같은데

참석자 3 06:23

작은 버델을 써도 상관없어요.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엄청 프로젝트를 퀘스트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

그래요. 예 요금이 많이 달라졌네. 잠깐만요.

참석자 4 06:33

아마 지금 100달러 굶었을 때가 to 1에서 to 2 사이

참석자 3 06:37

1분에 500회인 거죠. 그러면 1분에 500회고 얼마예요?

참석자 4 06:42

이게 토큰으로 나와 있어서 얼마나 토큰스러워

참석자 5 06:45

삼수 키우는 게 제일 힘든데

참석자 4 06:47

지난 토큰으로 인풋 100만에 2.5달러 그 뭐냐 아웃풋 100만에 10달러 해가지고

참석자 3 06:54

지금 하는 걸로 많이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

참석자 5 06:59

그래서 저희 토요일 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낮에 회의를 하시죠?

참석자 4 07:05

저는 아마 코엑스 내일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안 맞아요.
아까 자다가 휴가 못 냈어요.

참석자 3 07:11

코엑스 박람회 이름 뭐예요?

참석자 2 07:14

a 인공지능 대전이

참석자 3 07:17

잠깐만 인공지능 뭐 뭐 오는데 어디 회사가

참석자 4 07:22

맨 오버랑

참석자 3 07:27

나도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

참석자 3 07:34

마음메야 요거 그건가 KT인가 아니네 애드리 애플리도 여기도 요즘 힘들다던데
많이 없네.

그렇게 아 이건 스폰서구나

참석자 4 07:55

참여 기업은 따

참석자 3 07:57

청약은 따로 있네 우리도 이런 거 신청해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스타트업 할 때
따로 아직 나온 게 없네요.

참석자 5 08:09

저 부스 선정 들어가면 나오잖아

참석자 3 08:10

부스 선정 어디 있지?

참석자 5 08:12

신청이구나

참석자 4 08:21

참관객의 참가 기업 디렉토리

참석자 3 08:25

550부스가 있네 맞네 550개 있네 여기 있어

참석자 5 08:30

2개씩 쓰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?

참석자 2 08:35

감사합니다.

참석자 3 08:40

따로 없구나. 왜 회사가 없지 내가 못 찾는 건가

참석자 3 08:52

돈 왜 이렇게 비싸

참석자 3 09:02

어디 오는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다 어떤 기업들 오시는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.

참석자 4 09:08

다들 그냥

참석자 2 09:10

내일 오전에 지갑 병원 갔다 준다.

참석자 4 09:16

여기서 저기 있다 브론드로 표시돼 있는 기업들

참석자 2 09:19

그냥 저건 뭐야 플렉트나 이런 거는 저거 스폰서 장신 물어볼 거 있는데 그 아
네네네

참석자 8 09:30

아까 혹시 IR 자료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

참석자 3 09:35

그거는 뭐 따로 이렇게 모아진 사이트는 없는데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.

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
카페나 예 그런 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샘플로 나온 거나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참고하고 틀을 먼저 만드시고 사실 이것도 약간 피드백 해주는 데가 좀 있거든요.

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좀 보시긴 해야 될 거예요.

일단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일단 일단 대충 그런 거 참고해서 감사합니다.

네 감사합니다. 네

참석자 8 10:01

내가 아는데 그

참석자 3 10:05

아고라 저거 그거 거기 아닌가 올라가고 있지

참석자 5 10:13

CAS

참석자 6 10:15

어제 막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이 KPM

참석자 5 10:18

사람이에서 봤어요. 그런 데서 온 건가

참석자 6 10:24

들어본 이름들이네. 아고라도 본 것 같고

참석자 4 10:30

한국 자동차 연구원 학술대회

참석자 3 10:33

저기 공기업들도 오는구나.

참석자 6 10:37

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는

참석자 3 10:40

고등학교도 와요.

참석자 5 10:41

부산이 저런 거 되게 참가 잘해요. 지원 잘해줘.

참석자 3 10:44

부산 출신이에요.

참석자 6 10:45

아니요. 부산 출신이신가 봐요

참석자 3 10:47

저는 진주라고

참석자 7 10:50

경남인가

참석자 3 10:52

예 경남이 공군 훈련소에 있는 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?

공군이에요 아니 친구인데 공군 가가지고 뭐야 다 관련이 없어요.

원래 다 지금 원래 원래 사시는 데가 다 원래 토박이세요

참석자 4 11:05

네 저도

참석자 2 11:06

지금 사는데 7

참석자 4 11:07

저는 송도 생기고 나서 바로

참석자 3 11:12

아 진짜요? 엄청 그러면 그게 토박이네. 송도도 원래 엄청 별판이었죠.

참석자 3 11:22

친구

참석자 2 11:22

시흥

참석자 3 11:23

경기도 시흥 네 좋은 데 살았구나. 그 광명 쪽

참석자 2 11:27

광명 쪽 아니고 저기 이제 인천에 가까운 쪽으로

참석자 3 11:31

거기 어디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친구는 원래 저는

참석자 6 11:39

일산 살다가 용인 살다가 수원 살다가 서울

참석자 3 11:43

용인 어디 살았어요? 저 수지구 저는 이전에 바로 수지 한 5년 살았었는데 4년 살았어요.

참석자 6 11:48

저 동천동 그쪽

참석자 3 11:50

저도 저는 풍덕천동 풍덕

참석자 6 11:53

거기 많이 가죠. 현

참석자 3 11:54

그럼 수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요?

참석자 6 11:59

수지는 중학교 2학년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

참석자 3 12:03

거기서 학교를 다니셨어요? 네 고등학교 수지 다 아시겠네 롯데레 옆에 사람들 다 모아놓아요.

만남의 장소 거기 현대 그림 프라자 현대 그림 프라자 맞아 맞아 만남의 광장 친구분은 그러면

참석자 5 12:16

저는 군포 안양 옆이 군포요. 네 바로 밑에 있어요.

참석자 3 12:20

3분 옆에 아닌가

참석자 5 12:21

맞아요. 3번이 분포

참석자 3 12:23

거의 범계에서 놓고

참석자 6 12:25

그렇죠 다 아시겠

참석자 3 12:27

거기는 친구가 살아서 자주 갔었어요.

참석자 3 12:34

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됩니다.

참석자 6 12:42

부동산 도입 프로젝트

참석자 2 12:44

꿈에 꿈에 나오

참석자 3 12:45

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? 지금 34분 정도가 끝일 것 같은데

참석자 5 12:54

아까 강의할 때 책 보라고 하셨잖아요. 요즘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?

참석자 3 13:00

책요 요즘은 근데 이북들도 너무 많고 온라인 매트리얼도 너무 좋은 게 많아서

참석자 5 13:05

맞아 이북에서 찾아보려고

참석자 3 13:07

제가 그때 책을 읽으라는 의도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인지 능력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의 책이었거든요.

사실 뭐 책은 뭐 아무 책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기술을 탐구하는 데는 솔직히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해야 돼요.

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커뮤니티가 저희 사람들이 쓰는 그런 커뮤니티보다는 뭐 레딧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거기에 인공지능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.

그다음에 트위터 근데 저도 트위터를 원래 안 하는데 AI 개발자들이 다 트위터를 하더라고요.

외국에서 온 미국에서 그래서 x죠.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GPT 글이나 그러니까 GPT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팔로우를 해 놓고 글을 자꾸 하다 보면 요즘 흐름이 보여요.

예를 들면 GI가 6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단계까지 왔거든요.

참석자 3 14:05

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했던 연구 중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어느 대학교에서 지금 a자의 자율성은 25%다.

그럼 너 어떻게 그걸 판단했냐라고 한 거죠. 어떻게 했냐면 지금 유명하다 그 에이전트들이랑 AI를 다 모아놓고 네 스타트업을 만든 거예요.

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말하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.

그렇게 하니까 회사가 진행이 돼요. 아이디어도 회원인데 프로젝트 만드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

그래서 저희들끼리 회의는 엄청 하고 엄청 뭐 만들고 막 이랬는데 결국 프로젝트는 만들지 못했어요.

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25% 정도의 단계다라고 하거든요.

근데 사실 실제 우리 스타트업을 차려보면 그 정도 하고 끝내는 기업들도 있어요.

그 사람이 할 때도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소비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.

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들을 좀 글들을 잘 보셔야 돼요.
거기에 거의 다 나와 그리고 링크드인 다 하세요.

참석자 3 15:00

정은 링크 데인에 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나 외국에서 유명한 분 다 팔로우 해
놓으면 최신 소식들 같은 경우는 다 나오거든요.

그런 것들을 이런 토익 프로젝트에 자동화를 시켜놓고 매일 하루마다 뉴스처럼
보게 하면서 읽으면 제일 좋습니다.

그러면 뭐 하나의 키워드만 딱 나오고 MCP가 나오거나 a2a가 나오거나 여러
가지 나오면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
있거든요.

네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자꾸 나와요. 이번 플랫폼에서 AWS 플랫폼에서 이
런 게 나왔다 그게 왜 나왔을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다시 한 번 또 고민을 해
보게 되거든요.

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

참석자 2 15:37

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? 아까 전에 발표해 주실 때 질문 되게
많이 하신 거 있잖아요.

방금 전에 그분이 일주일에 AI 관련 최신 경영에서 논문을 한 편씩 읽는대요.
근데 논문 같은 것도 읽는 게 가 가져야 하는 태도 그게 궁금하기는 하죠.

참석자 3 16:01

엄청 가져야 돼요. 진짜 그러니까 그게 또 뭐 케바캔인데 네 논문을 요약해서
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기술적으로 파고들어서 볼 수 있는 사
람도 있을 거고 네 논문을 읽는 거 논문을 읽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거
이 태도는 II 리서치로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.

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걸 논문을 통해서 볼 정도로 이게 왜 유명한지 거

기 논문에 보면 한 개 그리고 퓨처 워크 이런 것도 적혀 있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이거는 좋은 연구인데 어떤 걸 더 개발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.

클로드 같은 경우도 MCP를 작년에도 개발했지만 논문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. 근데 그걸 상용화 단계로 이제 만들었던 뭐 컷의 AI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참고하고 보안 프로토콜이나 그런 취약점을 알려면 논문이나 새로 나오는 커뮤니티의 글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끝낼까요?

참석자 4 16:53

네 그냥 사진 사진

참석자 3 16:55

사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?

참석자 5 16:57

제가 한 명을 불러

참석자 3 16:58

아니 아니요. 그냥 이렇게

참석자 2 17:00

사진 기사 있는데

참석자 3 17:01

저 맨날 그냥 이렇게 찍었어 가지고 이거 켜놓고 앉아서 됐다. 다 나오나 다 나온다.

참석자 2 17:13

멘토님이 안 나와

참석자 3 17:14

하나

참석자 4 17:15

멘토님 얼굴이 안 좋네요.

참석자 3 17:17

이 정도만 나와도 돼요. 저 하나 둘 셋 지금 한 명이 좀 가까이 좀 모아봐요.

아 됐다 됐다 이렇게 해요. 이렇게 됐다. 하나 둘 셋 됐습니다.

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고하셨습니다. 너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아이 아닙니다.

참석자 6 17:36

그럼 선생님 혹시 분석하려면 통계 쪽도 따로

참석자 3 17:39

공부를 하는 분석 하면 좋죠. 통계 모델링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분석 하나로만 끝나는 경우가 없고 방금 말했던 그런 통계 모델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

그래서

참석자 2 17:50

전부 다 넣으시면 좋습니다.

참석자 6 17:52

BI 모델 abt 주고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몰라가지고

참석자 3 17:57

ab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나오고 UI가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른 거를 두 개 다 비교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그런 용어들만 아시면 되고 분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토요일

참석자 2 18:12

8시로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

수고하셨습니다. 수고

참석자 3 18:15

고맙습니다. 잘 준비해서 분량을 채워오세요.

참석자 2 18:18

수고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

참석자 1 19:27

근데 말씀드리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비교해 보면 될지도.

